"인구영향평가 법률로 지방 살리자"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발의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무주군의회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해양 의원이 발의한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국가가 정책 계획단계부터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시행하는 「인구영향평가 법률」을 제정할 것과 현행 「국가재정법」에 인구영향평가를 반영하는 법적 체계를 세울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해양 의원이 발의한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해양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며 "지방소멸의 소용돌이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쏠림으로는 국민 모두의 기본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국가정책 수립단계에서 선행되어야 할 지방소멸, 인구구조 분석이 누락된 결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정책 양산과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해양 의원은 "인구영향평가는 국가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기존의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주거·교통·복지 등 이 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것인지 정책 실행의 판단 근거가 되는 법률이어야 한다"며 수도권 편중 현상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또한 인구영향평가가 법제화 되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며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전향적 발상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소멸 대안을 담은 「인구영향평가 법률」의 제정과 시행 △인구영향평가를 근거로 국가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 예산의 원칙에 명기 △지방분산 촉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공격적이고 신속한 실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인구정책 지원 '한눈에'

'지금도 빛나는 삶, 내일도 기대되는 무주' 사업 안내 책자 발간

무주군이 인구정책 지원 사업 안내서 '지금도 빛나는 삶, 내일도 기대되는 무주(이하 내일도 기대되는 무주)'를 발간하고 관련 누리집도 개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내일도 기대되는 무주'는 무주군민과 전입 희망자, 귀농·귀촌인들 모두 관련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 △임신·출산(임신축하금 지원 등 25개 사업)을 비롯해 △양육·다자녀(아동수당 지원 등 44개 사업), △교육(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등 19개 사업), △결혼(결혼장려금 지원 등 3개 사업), △청년(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21개 사업), △중·장년(신중년 취업 지원 등 3개 사업), △노후생활(기초연금 등 23개 사업), △전입(전입세대 지원 3개 사업)등 △귀농·귀촌(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융자) 등 15개 사업), △다문화(국적 취득비용 지원 등 8개 사업) 등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이 담겼다.

또 군민안전보험을 비롯한 국가 예방접종, 암 환자 의료비, 긴급돌봄,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 처치료 감면 지원 등 84개 정주 여건 지원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신청 방법, 지원 요건 등)했다.

총 60쪽에 달하는 '내일도 기대되는 무주' 책자는 8면짜리 홍보 전단으로도 요약·정리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며 QR코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관련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군청 누리집에서도 알림마당 인구정책지원으로 들어가면 임신·출산부터 정주 여건 지원까지 11개 분야 지원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김성옥 과장은 "이번 안내서 제작과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무주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라며 "특히 홈페이지는 관련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정리해 접근성을 높이고 전입을 고려하는 사람들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SNS 홍보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무주가 될지 고민해서 정책에 담고 이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일도 기대되는 무주' 책자와 전단은 군청 민원실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광안내소,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배포되고 있으며 무주군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인구활력과 인스타그램(muju_in9)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장수군은 노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4일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5억 3천만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202대(5등급 100대, 4등급 100대, 건설기계 2대)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의 경우 경유 이외의 연료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대 배출가스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일 기준 △장수군에 사용본거지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 △정상운행 가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주 대상 교육 실시

진안군은 24일 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주 223명을 대상으로 제2차 사업주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농가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의 원활한 근무 환경 조성을 돕고, 농가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진안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807명(농가형 747, 공공형 60)을 도입할 예정이며, 농가 수요에 맞춰 3월 172명, 4월 509명, 5월 126명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25년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MOU 체결국인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와 이사벨라주, 퀴리노주를 직접 방문해 공공형과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해 송출 지자체에서 1차 선발한 신청자 1,500명을 대상으로 색맹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심층 면접 등을 진행하고, 최종 600여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건강검진과 사전교육을 거친 후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 순차적으로 입국하며, 이후 관내 신청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부스 운영자 교육 진행

진안군은 24일 군청강당에서 '제21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부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축제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부스 운영 수칙, △안전·위생 관리, △방문객 응대 방법, △고로쇠 수액의 특성과 효능, △바가지요금 근절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특히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고로쇠 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 운영자의 역량이 축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21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는 오는 3월 8일부터 9일까지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에서 개최되며, 고로쇠 수액 시음 및 판매, 지역 특산물 장터 운영,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며, 아이들을 위한 구름아래 놀이터, 버블쇼, 다양한 간식으로 활기찬 축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24일부터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현장과 농업관련 저수지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지사 37명의 직원이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위험요인 사전발굴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지사 관내 해빙기 건설현장 중점점검 사항은 지반의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요인 발굴 제거 및 예방대책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특히, 부산리조트 공사장 해재('25. 2 .14)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비산방지조치 등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등 200개소의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해 2인 1조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시설물 사용전에 예상되는 위험요소와 해빙기 사고가 예상되는 요인들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급 및 항구조치를 실시한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는 청사와 시설물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찾아 판단하고 공유하고 기록하며 평가를 통해 한정된 자원으로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용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을 투입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게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진안군은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20여명이 참석했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는 민·관·군·경·소방이 수시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2025년 진안군 통합방위 운영계획 보고, 제7733부대 1대대 훈련계획 및 협조사항 보고 후 통합방위 발전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